

“수업 연구 · 공개 · 성과 교사 우대”

천호성 교육감, “수업 우수교사 발굴 · 포상 시스템 구축해달라”… 지자체 협력 · 교육 특례 발굴도 강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공유하는 교사들을 발굴해 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10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교사들에게 발로만 수업 연구를 열심히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에 열정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발굴하고 포상·승진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년 초 각 교육지원청에서 수업 공개 참여 교사를 공모하고 실제 공개수업을 진행한 뒤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수업 연구와 공개를 활성화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유도하고 우수한 수업 사례가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0일, 전북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수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공유하는 교사들을 발굴해 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지자체와의 협력은 전북교육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역 현안과 지역 소멸 등 전북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치, 행정이 똬뚝 뭉쳐서 상호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맞는 교육 분야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

다는 주문도 내렸다. 천호성 교육감은 “강원·세종·제주 등 특별자치도인데 제주시는 상당히 많은 특례를 갖고 있고, 전남·광주가 통합되면서도 상당한 특례를 받게 됐다”며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로 특례 조항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례가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장들이 미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세계 명문대 총장단 · 글로벌 대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 가동

전북대, 美퍼듀대, 佛소르본누벨대 등 ‘글로벌자문위원회’ 발족… ‘서울대 10개’ 매머드급 추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세계 명문대 현직 총장단과 글로벌 대기업, 국제 교육가구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정부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선도하는 고등교육 혁신 거점으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대는 해외 자매결연 대학 총장들을 중심으로 ‘글로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적 기업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 간 학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 산업계와 국제기과의

실질적 역량을 결합하는 확장형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글로벌자문위원회에는 미국 퍼듀대학교, 프랑스 소르본누벨대학교, 중국 지질대학교, 인도네시아 가자바다대학교, 모로코 모하메드 5세대학교 등 북미·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자매대학 총장단이 대거 참여한다.

여기에 프랑스의 글로벌 방산·첨단 기술 기업 탈레스(Thales Group)와 전 세계 1,000여 개 프랑스어권 대학 네트워크를 보유한 프랑코폰대학협의체(AUF)도 협력 파트너로 합류한다. 대학·기업·국제기구가 한데 참여

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대는 이번 메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학생에게 한층 고도화된 글로벌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매대학과의 공동학위제 확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고도화는 물론, 탈레스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 실무형 인턴십, 세계 석학 및 산업 리더 특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 인재 양성 체계도 대폭 강

화한다. 각국 명문대 및 AUF 네트워크를 활용해 검증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전북지역의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북대를 ‘글로벌 산학연구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양오봉 총장은 “세계적 대학 총장단의 교육적 통찰과 탈레스 AUF 등 글로벌 리더 기업·기구의 산업 현장 역량이 결합한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차원 높일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내 학생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글로벌 첨단 인재와 기업이 전북으로 모여드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독보적 성공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내년 전북교육 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 반영

도교육청,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참여 의견 수렴… 19억원 규모 공모사업도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1일부터 9월 3일까지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비롯해 인터넷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지원청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총 19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지역에 필요한 교육사업을 직접 제안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제안 대상은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사업 등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천호성 교육감이 강조해 온 ‘지역화·다양화·특성화’ 교육 철학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공모사업과 달리 특정 학교 단위가 아닌 전북교육 전반에 적용되는 정책사업 가운데 교육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의견서는 전북교육청 누리집의 ‘민원·참여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편성 의견 제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인터넷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북교육의 10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도민들이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대학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S등급’ | 특성화부터 전공자율선택 · AI 교육까지 혁신 성과 인정

우석대학교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으며 교육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교육혁신 추진 성과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석대는 그동안 전주와 진천캠퍼스

의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대학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등 교육혁신을 추진해왔다. 특히 전공자율선택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 탐색과 선택제도를 내실화했다.

학생 주도형 다중전공 제도인 3-Layer MyM(Make your own Major)도 확대했다. 모든 학생이 다중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 운영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 지원 분야에서는 AI 기반 학생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학년별 진로지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진로 미결정 요인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했다.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도 힘을 쏟았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고 AI 기초·심화의 계열성을 갖춘 교과목과 전공 간 경계를 확장한 미래 대응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했다.

또 AI 기반 학습경험설계(LXP) 시스

템을 구축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혁신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AI+X 교과목 76건을 개발하고 기초하문 교과목 35건을 확대했으며, JA(Joint Appointment) 교원도 18명 증원했다.

교육혁신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도 평가에 포함됐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학과전공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 대학 주요 의사결정위원회에 대표성을 갖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 비전·정책 ‘한눈에’

제20대 전북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 활동 백서 발간
40일간 활동부터 천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까지 담아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40일간의 활동과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북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천호성 교육감의 주요 공약과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전북교육의 비전과 방향 중점과제 등이 담겼다. 특히 천 교육감이 강조해 온 ‘교육의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실현하고 전북교육의 대전환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 나침반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백서는 △제1장 전북교육의 진단과 발전 전략 △제2장 10대 핵심과제 △제3장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제4장 제언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확대 및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0 프로젝트 △성장지향 수업·평가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전북학생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 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제3장에서는 ‘회복안정’, ‘상생협력’, ‘포용성장’, ‘미래도전’, ‘혁신공정’ 등 5대 정책목표에 따라 25개 중점사업과 50개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활동을 비롯해 취임준비위원회 활동, 인수위원회 운영예산 결산 내역 관련 보도 내용과 활동 소감 등도 백서에 상세하게 담았다.



반상진 인수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전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찬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것은 교육청의 시대적 책무”라며 “이 백서가 그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나침반이자 천호성 교육감 임기 4년 동안 전북교육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갈 견고한 밑그림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교육감도 기념사를 통해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천 교육감은 “백서가 완성되기까지 밤낮없이 토론하며 지혜를 모아주시는 150여 명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교육청 및 직속기관 실무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처음 교육감의 뜻을 세웠던 그 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경청하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전북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 백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돼 교육가족과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청렴계약·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인정

도교육청, S2B 청렴기관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우수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잇따라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026년 상반기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청렴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유공 포상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구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전북교육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를 성실

하게 이행하고 의무구매비율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한 적이 없는 공공기관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장기성과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계획 수립부터 실적 관리, 현장 컨설팅, 담당자 교육, 우수기관 포상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비율은 2.21%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고3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운영

전 · 현직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27명 참여… 189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을 운영하며 공교육 중심의 맞춤형 진학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비전대 학교 행복기숙사 2층 컨벤션홀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을 위한 고3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전문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준비하는 고3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 사전 신청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순한 대학·학과 정보 제공을 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강점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 희망 대학과 학과에 맞춘 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에는 전·현직 입학사정관과 전북교육청 대입지원관,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고교 교사 등 대학입시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

상담은 모두 7개 부스에서 하루 최대 10회차로 운영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마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해진 시간에 상담 부스를 찾아 개인별 진학전략을 상담받게 된다.

상담 참여자는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미리 정리해 방문해야 한다. /오상근 기자